



지역산업 특화발전을 위한 투자효율화 전략

2020. 11. 28

정종석 연구위원
(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)



목차

I

추진 배경

II

추진 현황

III

주요 문제점 및 이슈

IV

투자효율화 전략 (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중심)



I. 추진 배경

한국판 뉴딜(7.14)의 일환으로 “지역균형 뉴딜” 발표(10.13)

-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, 2020년은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고, 상당기간 V자 반등 어려울 전망

*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(%) : 전세계 $\triangle 4.9$, 선진국 $\triangle 9.0$, 신흥국 $\triangle 3.0$ (IMF)

* 국내 연간 GDP 성장률(%) : 2.5(20.4) $\rightarrow$ $\triangle 1.3$ (20.8) (한국은행)

- 우리경제도 외환위기 이후 ‘22년 만에 역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, 위기극복 및 경제·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한국판 뉴딜 발표
- 후속하여, 지역의 역할을 강조한 “지역균형 뉴딜” 을 발표, 중앙-지역 간 협업, 지역의 자발적 혁신 강조

- * ① 한국판 뉴딜(총 160조원) 中 지역에서 시행되고 효과가 귀착되는 사업(47% 수준),
② 지자체가 자체재원·민간자본 등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,
③ 지방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



I. 추진 배경

지역산업 육성의 성과 창출을 위해 뉴딜과제와 연계 강화 필요

- 수도권 인구 증가(50% 상회), 비수도권의 GRDP의 격차 확대 (2015년 이후 수도권 > 비수도권) 등의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을 연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필요
- 지역산업 육성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추진 체계로 체질 개선하고, 지역의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필요

* 지역산업 전략성 부족, 부처별 정책간 연계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



Ⅱ. 추진 현황

1. 지역산업 육성 사업(국비지원) 현황

- 지역산업의 혁신성장 및 특화발전을 위해 2020년 균특회계 기준으로, 50여개 세부사업(R&D, 비R&D)에 2.6조원(경자구, 외투 등 제외) 투자
- 산업부(지역산업 육성 및 산업인프라 구축), 중기부(지역기업 성장지원 및 창업생태계 조성), 과기부(지역과학기술 진흥), 교육부(지역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), 고용부(지역고용촉진) 등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

* 산업부(15개, 7,161억원), 중기부(14개, 4,219억원), 과기부(17개, 3,407억원), 교육부(4개, 8,665억원), 고용부(2개, 2,543억원)



Ⅱ. 추진 현황

1. 지역산업 육성 사업(국비지원) 현황

부처	단위사업명	세부사업수	2020년예산(억원)
산업부	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	3	1,895
	지역산업경쟁력강화	11	3,128
	지역투자유치활성화	1	2,137
중기부	규제자유특구제도	4	1,055
	산학연협력기술개발	5	576
	지역산업경쟁력강화	4	1,972
	창업인프라지원	1	616
과기부	AI기술개발	2	626
	ICT표준화및인증(지역)	1	38
	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	4	177
	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	1	119
	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	1	54
	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	3	294
	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	1	269
	연구개발특구육성	3	1,551
	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	1	280
교육부	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	1	993
	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) 육성	1	3,689
	전문대학 혁신 지원	1	3,908
	학교기업지원사업	1	75
고용부	사회적기업육성	1	1,013
	지역고용촉진지원	1	1,530



Ⅱ. 추진 현황

2. 지역산업 성장거점(산업·혁신클러스터) 현황

- 지역별로 산업단지, 혁신도시(공공기관 입주 신도시), 경제자유구역(외투기업 유치) 등의 지역성장거점 外, 산업(혁신)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서 연구개발특구(강소특구 포함),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, 지역혁신클러스터, 규제자유특구 등을 다수 지정
- 산업단지는 전국 17개 시·도에 1,223개*,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부터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8개**, 혁신도시는 2007년부터 다극화 성장거점의 핵심중추로서 10개 조성

* (2020.6월 기준) 국가 47개, 일반 674개, 도시첨단 30개, 농공 472개

** (03년) 인천, 부산진해, 광양만권, (08년) 경기, 대구경북, (13년) 충북, 동해안, (20년) 광주



Ⅱ. 추진 현황

2. 지역산업 성장거점(산업·혁신클러스터) 현황

- 연구개발특구는 대덕특구(05년) 시작으로 광주·대구(11년), 부산(12년), 전북(15년) 등 5개 특구를, 2019년에는 6개* 강소특구를 추가 지정

* 안산, 김해, 진주, 창원, 포항, 청주

-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는 2005년 7개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2007년 5개 산업단지를 추가, 2010년에는 전국 193개(거점 25개, 연계 168개)로 확대하였고, 2015년부터 전국 산업단지로 확대

* (05년) 창원, 구미, 울산, 반월시화, 광주, 원주, 군산, (07년) 남동, 녹산, 대불, 성서, 오창



Ⅱ. 추진 현황

2. 지역산업 성장거점(산업·혁신클러스터) 현황

- 지역혁신클러스터는 2018년부터 비수도권의 14개 시·도를 대상으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*를 지정

* 미래차·항공(울산, 경북, 세종, 경남), 바이오·헬스(대구, 강원, 전북, 제주), 에너지 신산업(충남, 광주, 전남, 충북), ICT융합(부산, 대전)

-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의 14개 시·도를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총 24개의 특구를 지정

* 1차(19.8), 2차(19.11), 3차(20.7), 4차(20.11) 등을 통해 125개 규제특례 허용



Ⅱ. 추진 현황

2. 지역산업 성장거점(산업·혁신클러스터) 현황

구분	산업단지	경제자유구역	혁신도시	연구개발특구	첨단의료 복합단지
목적	국토균형개발 산업발전	균형발전 외투유치	균형발전 RIS체계 구축	R&D 집적화	첨단의료 산업 육성
조성 년도	'62년	'03년	'07년	'05년	'10년
지정 현황	47개 (국가산단기 준)	8개	10개	5개 (강소특구 6개)	2개
평균면적	8.06 ^{km²} (국가산단기 준)	21.91 ^{km²} (광주(예비) 제외)	4.35 ^{km²}	27.82 ^{km²} (강소특구 제외)	1.08 ^{km²}
입주 자격	국내외기업	국내외기업	공공기관 국내외기업	연구소기업 국내외기업	국내외기업
주관부처	산업부	산업부	국토부	과기부	복지부

Ⅱ. 추진 현황

3. 지역산업육성 관련 지역혁신기관 현황

- 2000년 이후, RIS기관 신설, NIS기관의 전국적 확산(지역분원) 등으로 각종 지역혁신기관*이 크게 증가

* 지역산업 · R&D 관련 사업기획, 연구개발 수행, 평가관리, 사업화·시험인증·공용장비 지원, 연구인력 양성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

- **(RIS기관)** 1990년대 중반 기술혁신센터(TIC), 테크노파크(TP) 등을 시작으로 지역산업 · R&D 기반확충 차원에서 다양한 유형의 지역혁신기관*이 지속 확대 · 확산

* 테크노파크(18개), 지역특화센터(80개), 지역혁신센터(81개, 05년 RRC+TIC→RIC), 지자체연구소(12개),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(10개), 연구개발특구본부(5개), 산학융합본부(17개), 연구개발지원단(17개), 지역사업평가단(13개) 등



Ⅱ. 추진 현황

3. 지역산업육성 관련 지역혁신기관 현황

- **(NIS기관)**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지역분원(19년 61개), 전문생산기술연구소(19년 15개) 등도 지역혁신기관의 역할을 수행

* 출연(연) 25개 중 21개 기관이 61개(비수도권45개) 지역분원 보유

- (생기원(13), 기초연(8), 에기연·전기연·KISTI(4), 기계연·ETRI·건설연(3)
화학연·KIST(2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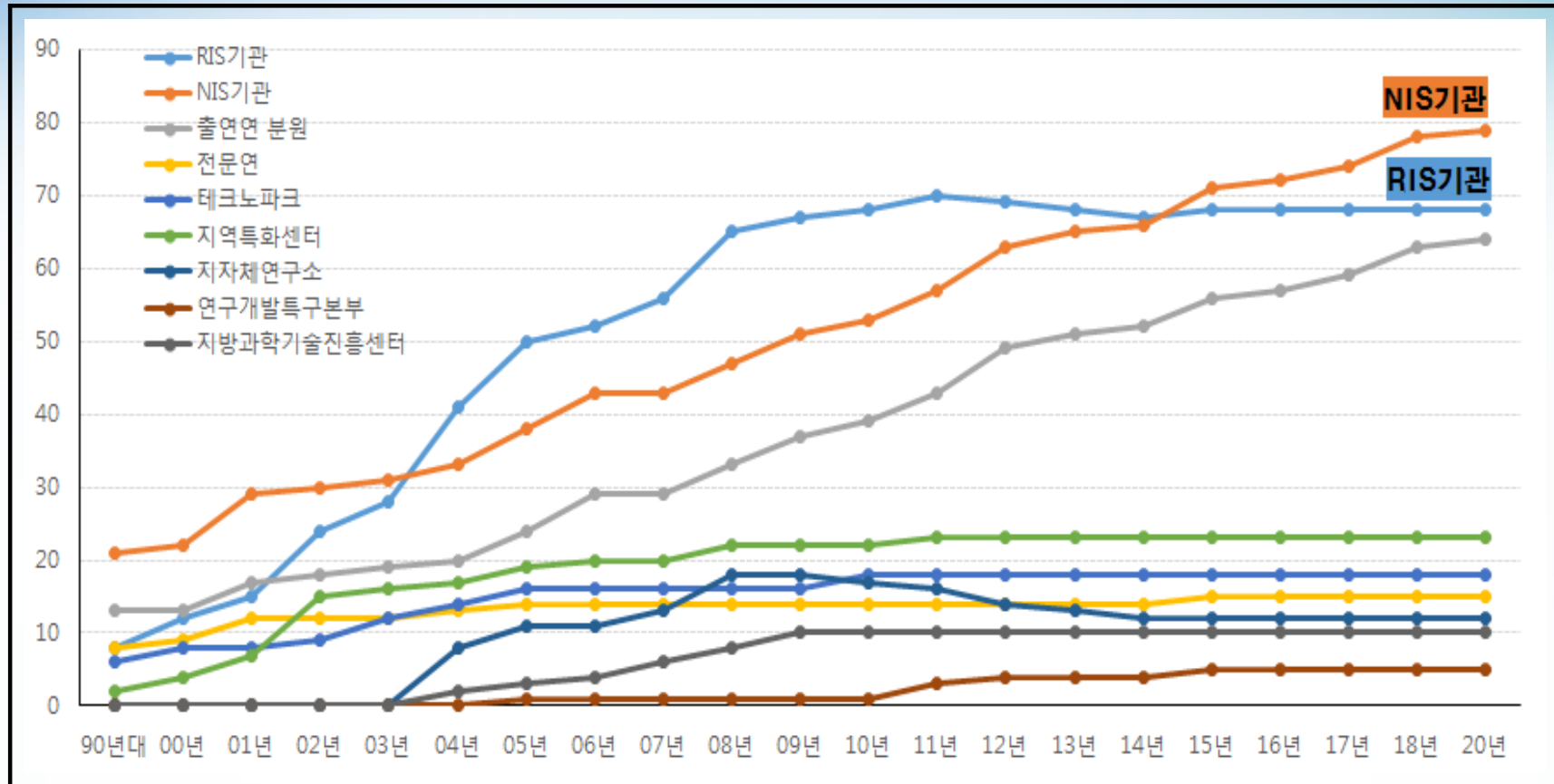
* (지역별) 전북(9개), 대구·광주(6개), 부산·울산·경북(4개), 강원·충북(3개),
전남·경남·제주(2개), 대전·세종·충남(0개)

* (설치년도) ~99년(13개), 00~04년 (7개), 05~09년 (13개), 10~13년(16개),
14~17년(5개), 18년~(3개), 설치중(4개)



II. 추진 현황

3. 지역산업육성 관련 지역혁신기관 현황



* (제외) 창조경제센터, 연구개발지원단, 지역사업평가단



Ⅱ. 추진 현황

4. 지역산업육성 관리시스템의 구축 현황

- (통계시스템) 지역별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(데이터 기반의) 성과관리를 위한 통계시스템을 구축 · 운영중

* 국비 · 지방비 예산이 투입된 모든 사업(R&D, 비R&D)을 대상으로 지자체 주도로 지원예산, 성과, 지원기업 정보 등의 통계(과제DB, 성과DB, 기업DB, 정책통계DB)를 종합 관리

- (지역연구장비 정보시스템) TP를 지역 연구장비 허브(전담)기관으로 지정 · 운영하여 지역 전체 연구장비(TP + 非TP 보유)의 활용 효율화

* 지역 차원의 연구장비정보망, 실태조사, 활용지원, 장비보유기관 간 연계협력 등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· 운영



Ⅱ. 추진 현황

4. 지역산업육성 관리시스템의 구축 현황

【 지역별 데이터기반 통계시스템의 추진 현황 】

시도	주요 추진실적	‘20/21년 추진계획
부산	·BMPS(3,579개 기업) 구축(19.12)	·공공기관/기업 참여 DB제공 협력체계 구축
대구	·DRIS(사업·성과·혁신자원 위주 시스템) 구축(18.5)	·성과자료 입력기능, 유사과제 검색기능 등 개선
광주	·GPS(2,376개 기업 등) 구축중	·DB확보 자수도 향상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 강화
대전	·데이터분석전담부서설치(19.4),시스템 구축 추진중	·지역데이터 플랫폼 → 중소기업지원 통합플랫폼으로 확장
울산	·UPIS(산업·사업·성과기업DB) 시범 운영중	·산업·사업·성과기업DB 갱신, 관리항목 다변화 등 추진
세종	·시스템 구축 추진중(ISP 수립 미완료)	·사업관리, 기업관리, 산업통계 기준으로 관리항목 체계화
강원	·Wehago-V(강원기업총괄DB) 구축(19.12)	·지원기업 성과관리분석, 지역정책 통계관리 등 기능 추가
충북	·시스템(smart.cbtp.or.kr) 구축(20.6)	·활용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의 계획수립 및 지원 내실화
충남	·시스템 ISP수립(19.12)	·과제접수, 사업 및 성과 관리 등의 기능 추가
전북	·시스템 ISP수립(19.12) ※R&D통합관리시스템 기운영중	·기존 JBCC(컨택센터)/JBTIS(성과모니터링) 통합추진
전남	·시스템 ISP수립(19.12)	·플랫폼서비스 제공 예정(20.10)
경북	·G-SEIS(895개기업DB) 1단계 구축완료	·산학연관 공동분석 데이터 활용 연구회 활성화
경남	·ISP 용역 및 파일럿 시스템 구축(진행중)	·성과정보시스템 기본기능 구축 및 산업통계시스템 통합
제주	·JEIS(제주산업정보서비스) 구축	·시스템 고도화 및 NTIS/RIPS 시스템 연계 추진

Ⅱ. 추진 현황

4. 지역산업육성 관리시스템의 구축 현황

【 지역별 지역연구장비 정보시스템의 추진 현황 】

시도	주요 추진실적	'20/21년 추진계획
부산	·BEIS(6,170건DB) 구축(19.12)	·ZEUS의 통계·예약·신청·조회 정보 연계 제공
대구	·DRIS(2,409건DB) 구축(20.1)	·ZEUS API 공여, 실태조사, 성과(통계)관리 등
광주	·GPS(3,625건DB) 구축(서비스 제공중)	·ZEUS 연계 추진, 공동연구장비 협의체 운영 등
대전	·시스템 구축 추진중	·혁신자원조사, ZEUS 연계 등을 통해 DB확보 중
울산	·울산지역사업종합정보(UPIS) 구축(19.12)	·장비통합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혁신기관 협의회 운영
세종	·없음(세종TP 19.9월 설립)	·산업별 센터설립 및 장비구축 예정
강원	·G-EQNET(1,268건DB) 구축(19.12)	·ZEUS/E-tube 연계 및 8개기관별 공용장비DB 활용
충북	·충북RACE(3,397건DB) 구축(19.12)	·충북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기관간 협력 강화
충남	·시스템 설계 방향 논의중	·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를 통해 활용운영방안 논의 중
전북	·장비정보제공시스템(jbjangbi.jbtp.or.kr, 1,341건DB) 운영중	·공용장비 활성화를 위한 운영협의회 활동 강화
전남	·전남연구장비정보망(jeinetjnsr.re.kr, 2,747건DB) 운영중	·연구장비정보망 고도화(2차) 추진(20.6월)
경북	·GBREMS(1,428건DB) 구축(1단계)	·연구장비 보유기관과 공동활용 협력 강화
경남	·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(진행중) ※기존 GNECUS 폐쇄	·편의기능 추가 등 시스템 고도화
제주	·연구장비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추진중	·조례 제정 완료 후 장비의 예약관리·활용 시스템 구축 추진



Ⅲ. 주요 문제점 및 이슈

1. 지역R&D 개념·기준 모호 → 지역R&D 전략성·체계성 미흡

- 사업목적·내용 기준으로 “지역” 사업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이 일부 존재

* (과기부)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(공공기술사업화지원), 과학기술기반구축지원(출연연 지역분원의 연구장비 구축), (산업부) 권역별신산업육성(자율주행차, 수소연료전지차), (중기부) 산학연Collabo기술개발(지역적 고려 없음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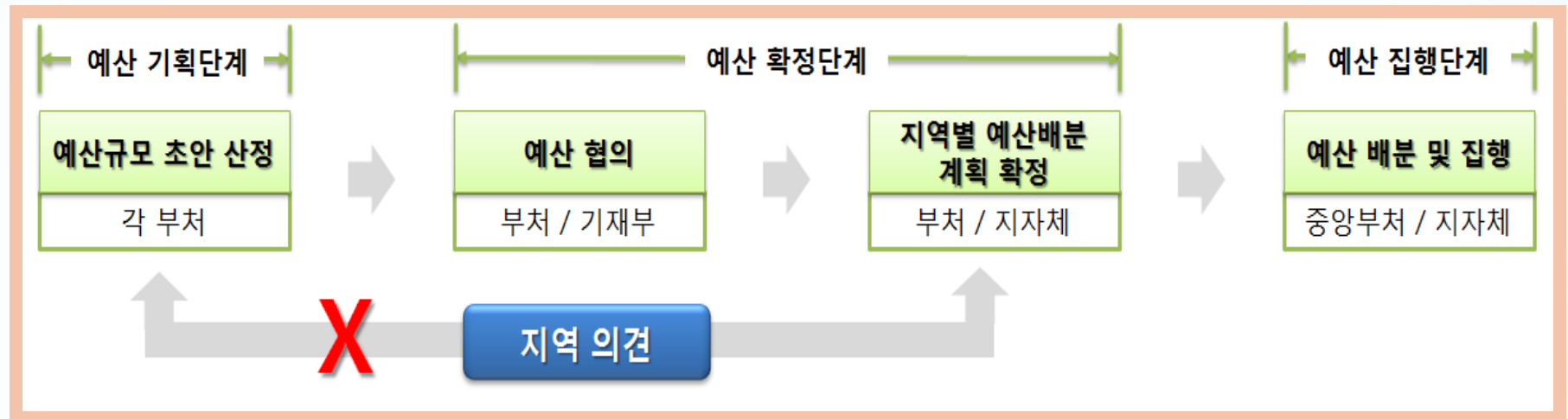
과기부	산업부	중기부
- 연구개발특구(R&D, 운영및인프라지원) - 강소특구 -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(연지단육성) - 지역수요맞춤형R&D지원(지역혁신역량강화 지원 사업)	- 광역협력권산업육성(R&D, 비R&D) - 지역혁신클러스터(R&D, 비R&D) - 국가혁신클러스터, 공공기관연계지역산업육성 - 지역산업육성기반구축 - 창의/소재부품/시스템거점기관지원(일몰) → (20년)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(예타면제) - 산학융합지구조성(계속) -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(20년 일몰관리혁신)	- 지역특화산업육성(R&D, 비R&D) - 20년부터 지역특화산업육성+(예타면제) - 국가융복합단지연계지역기업상용화R&D(a) -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비우체(b) -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(c) ※ (a+b+c) 예산유지 목적의 임시성 사업 - 규제자유특구(19년부터)
-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 - 과학기술기반구축지원(출연(연) 지역분원)	권역별신산업육성	- 산학연 Collabo기술개발 - 창업인프라지원(지식산업센터 포함)

Ⅲ. 주요 문제점 및 이슈

2. 중앙정부 위주 · 공급자 중심의 지역사업 지원체계 유지

- 사업(균특 지원계정) 예산규모, 지원 방식 등을 부처가 사전에 확정하기 때문에, 지역은 정해진 예산을 그대로 집행만 수행하는 주체

* 일부 사업의 경우, 지역별 배분예산을 부처와 지역이 공동으로 확정하는 형식적 절차가 운영되고 있으나, 내용적으로 사전 기획 · 조율보다는 정해진 예산을 단순 확정하는 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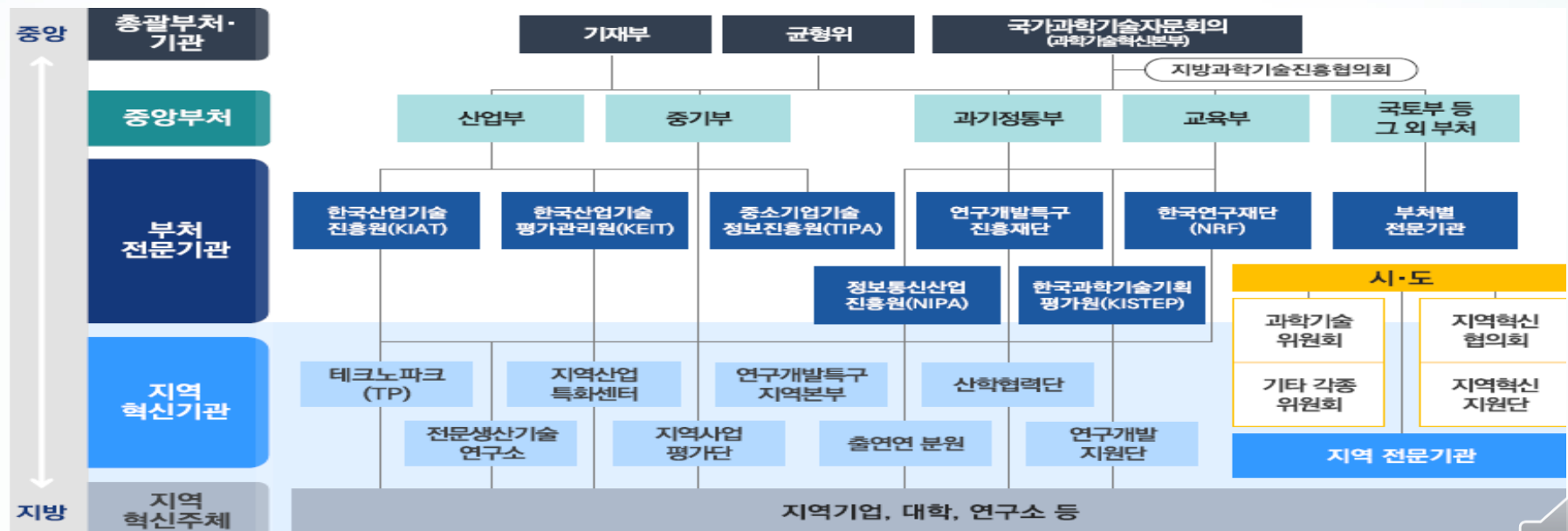


Ⅲ. 주요 문제점 및 이슈

3. 부처·사업별 칸막이 지원 →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곤란

● 산업부 · 중기부 · 과기부 등 부처별로, 또 사업별로 각종 지역 사업이 분절적으로 시행 중

* 산업부는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지역산업 육성, 중기부는 지역기업 성장지원 및 창업생태계 조성, 과기부는 지역과학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각기 추진 중



Ⅲ. 주요 문제점 및 이슈

4. 지역별 타깃산업의 적정성 미흡 → 산업별 투입자원 과소화

● 산업부 협력산업, 중기부 주력산업 등 지역별로 최대 10여개 타깃산업 육성 → 지역R&D 성과(특히, 일자리성과) 미흡

- *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(1개) 및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(3~4개), 규제자유특구(1~2개)를 통해 타깃산업 수가 지속 확대
- * 국가적으로도 단기간에 경제적 성과를 실현하기 어려운 미래 신산업(전기, 자율차, 스마트 선박, 스마트의료기기, 바이오유전자치료제, 에너지신산업 등)을 타깃산업으로 선정
- * 지역별로 산업명을 임의로 설정함에 따라, 지역별 특화산업간 비교분석이 불가하고 유사한 산업이 중복되거나 용어 혼재로 전략성 저하
 - (예시) 항노화 바이오(경남), 바이오헬스(충북), 바이오식품(충남), 바이오메디컬(부산), 바이오 뷰티(경북), 의료 헬스케어(대구), 디지털 생체의료(광주), 정밀의료(세종) 등



Ⅲ. 주요 문제점 및 이슈

5. RIS기능 NIS기관 급증 → 지역혁신기관간 역할·기능 중복 심화

- RIS기관의 신규 설립을 억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RIS 기능을 수행하는 NIS기관의 지역분원 크게 증가

* 지역R&D과제 수행, 기술지원, 장비활용지원 등에 있어서 기존 RIS기관과 경합관계 형성

출연(연) 지역분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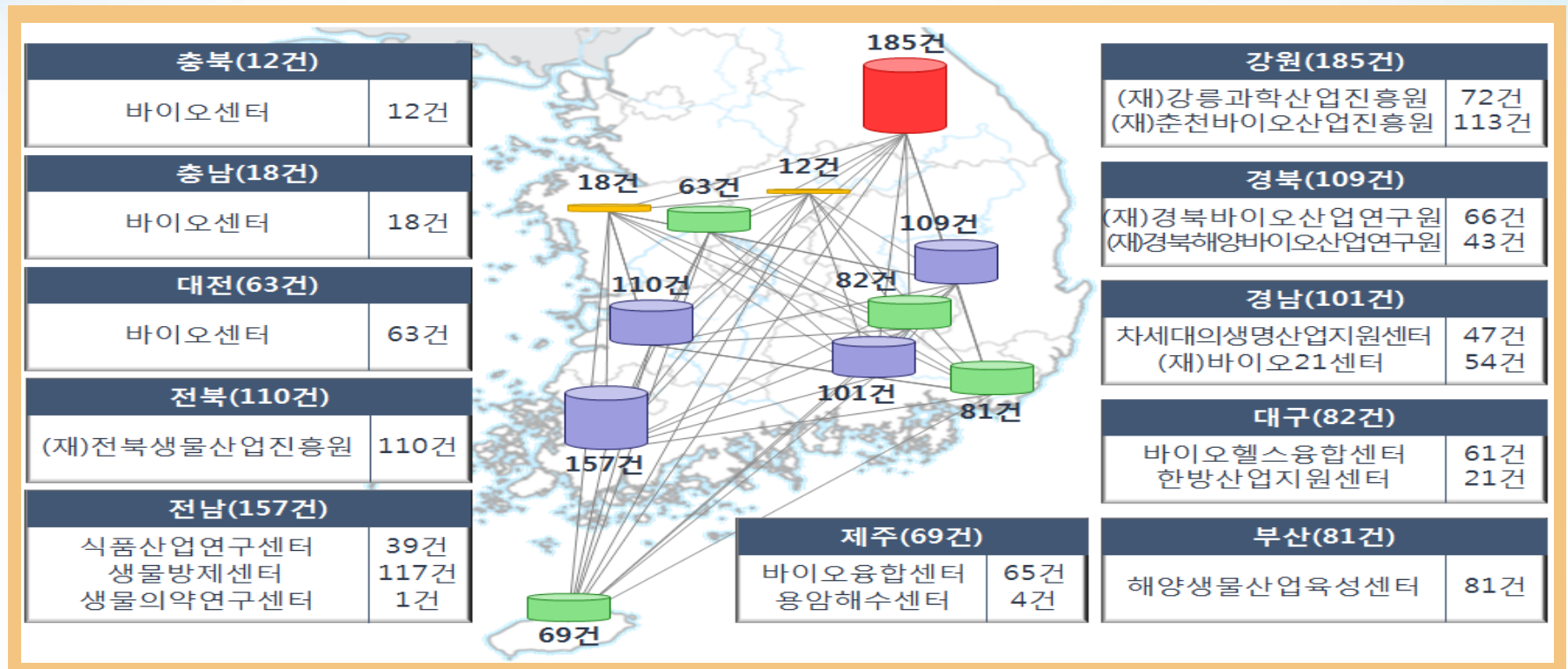
- ❖ 출연(연) 25개 중 21개 기관이 61개(비수도권 45개) 지역분원 보유(19.3월 기준)
 - 생기원(13), 기초연(8), 에기연전기연KISTI(4), 기계연ETRI건설연(3) 화학연KIST(2) 등
- ❖ 전북(9), 대구광주(6), 부산울산경북(4), 강원충북(3), 전남경남제주(2)
 - 대전, 세종, 충남 (없음)
- ❖ (설치년도) 10년이상 33개 - ~'99(13), '00~'04(7), '05~'09(13)
10년미만 28개 - '10~'13(16), '14~'17(5), '18~(3), 설치중(4)



Ⅲ. 주요 문제점 및 이슈

(사례) NIS기관의 RIS기능 확대 → NIS기관과 RIS기관간 기능중복

* 각종 NIS기관(중진공, 산단공 등 비R&D기관 포함)의 지역사업 참여 확대로 RIS기관과의 사업영역 및 기능의 중복 확대(특히, NIS·RIS기관 모두 장비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)



Ⅲ. 주요 문제점 및 이슈

6. 기존 RIS기관도 기능 지속 확대 → 기관간 역할·기능 중복 심화

● RIS기관별 지원기능의 무분별한 확대에 따른 기능중복 심화

- * 기관 설립 초기에는 차별성을 확보하였으나, 조성사업 종료 이후 기관의 성장·생존을 위한 사업영역 및 기능 확대가 진행됨에 따라 기능 중복 확대
- * 대다수 기관이 '자기완결형 지원체계' 구축을 지향함에 따라 기관간 기능중복, 사업영역의 중첩 가중

● RIS기관간 기능중복 → 지원창구 복잡·다기화로 기업의 혼란 야기

- * 인프라(입주공간, 장비 등), 기술개발, 기업지원서비스(창업보육, 기술지원, 인력양성) 등 지원수단의 유사성으로 인해 RIS조직간 차별화에 한계
- * 공급자 중심의 사업추진, 지원창구 복잡·다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기업·연구자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기능 미흡



Ⅲ. 주요 문제점 및 이슈

(참고) 기존 RIS기관의 주요 수행 기능

부처	지역혁신기관	연구 개발	기술 지원	교육 훈련	창업 지원	경영 지원	네트 워킹	장비 활용	자금 지원
산업부	지역혁신센터(자립) (20여개)	●	●	△	△	×	×	●	×
	산업단지클러스터(MC) (90개)	×	×	×	×	×	●	×	×
	지역특화센터(독립) (23개)	△	●	●	△	△	△	●	×
	지자체연구소 (19→13개)	●	●	×	△	△	×	△	×
	산학융합지구 (13개)	●	●	●	△	×	●	●	×
과기부	과학기술진흥센터(SP) (10개)	●	×	△	×	×	●	△	×
	연구개발지원단 (17개)	×	×	×	×	×	△	×	×
	연구개발특구본부 (5개)	●	●	△	△	△	●	×	×
중기부	테크노파크(TP) (19개)	△	●	●	△	●	△	●	×
	지방중기청 (12개)	×	×	×	×	×	×	△	●
	중소기업진흥공단(지역본부)	×	×	△	△	△	×	×	●
	창업보육센터 (263개)	×	×	×	●	△	×	×	×
	창조경제혁신센터 (19개)	×	△	×	●	△	×	×	×
특허청	지역지식재산센터 (27개)	×	●	△	×	×	×	×	×

● : 중점기능, △ : 부가기능, × : 기능 없음



Ⅲ. 주요 문제점 및 이슈

7. 지역혁신기관 간 네트워킹 및 협력 부족

● (중앙 차원) 지역혁신기관 간 연계·협력 촉진을 위한 중앙 차원의 역할 및 지원체계(종합조정체계) 부재

- * (지역 內 지역혁신기관 간 연계·협력 활성화의 경우) 기관간 연계·협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의 운영에도 불구하고, 각종 RIS·NIS기관 간의 특성화·유형화를 통한 역할분담 및 차별화가 전제되지 않아 형식적인 네트워크(산학연합의체 등)에 머물 뿐, 실효적 성과 미흡
 - 기관유형별 여건·특성을 고려하되, NIS·RIS 측면의 중장기 산업·과학기술 육성전략에 기반하여 기관간 역할·기능 재정립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로드맵 부재
- * (조정체계 구축의 경우) 부처별·사업별 칸막이 운영구조, 부처간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인해 중앙 차원의 종합조정기능 미작동
 - 지역 차원의 종합조정기능 또한 제도·예산체계(중앙부처직접편성) 제약으로 실현되기 어렵고, 이로 인해 사후적으로도 RIS기관 조직 및 지역소재 NIS기관 간의 연계·조정 곤란



Ⅲ. 주요 문제점 및 이슈

7. 지역혁신기관 간 네트워킹 및 협력 부족

- **(지역 차원)** 지역혁신기관간의 협력이 각종 지원사업의 틀 안에서 수행되는 '제도적 협력'에 머물고 있을 뿐, 수요자 중심의 '자발적·수평적 협력'은 크게 미흡

* 회의워크숍 등 일회성의 단순 네트워킹 및 협력으로 지식(기술)의 중개, 확산, 활용 기능은 미미한 수준(단순 실적만 발생)

- * 기관별로 협력 네트워크가 복잡·다기하게 구축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협력 코디네이터의 다원화 문제까지 발생
 - 수요자(지역기업, 지역 연구자) 입장에서는 이들 기관별 네트워크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고유활동 외 네트워크 활동에 시간을 과다 투자
 - 수요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, 유사중복의 협력활동 수행으로 지원사업 간의 차별화된 성과 확보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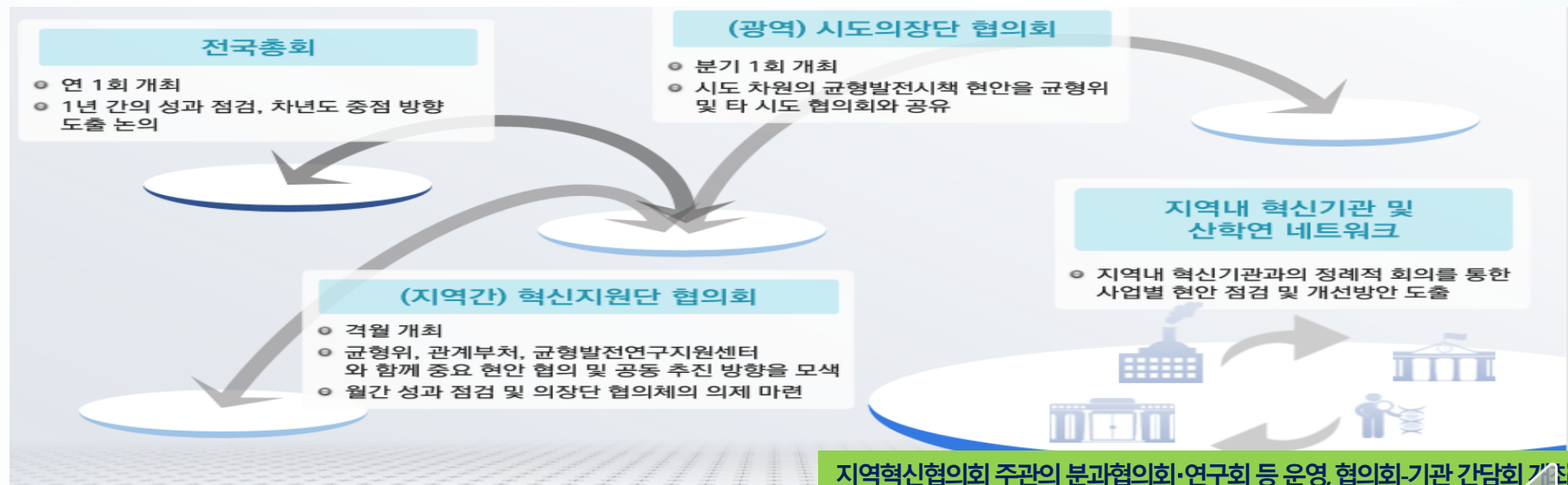


IV. 투자효율화 전략 (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중심)

1. (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) 지역혁신기관 간 협력 활성화

● 지역혁신협의회의 3대 기능(심의·조정, 평가·모니터링, 소통·협력) 관련하여 지역혁신기관간 협력 기회의 장 확대

*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지역혁신주체 간 정보공유, 현안 논의, 성공사례 공유·확산 등을 위한 혁신활동이 매우 중요



IV. 투자효율화 전략 (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중심)

2. 지역혁신기관 간 혁신자원 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

-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산업, 기업, 기술, 장비, 전문가, 지원서비스 관련 정보의 통합 DB플랫폼 구축·활용 → 지역기업 및 연구자의 혁신활동 지원 강화

- * 지역내 혁신활동에 필요한 장비 정보 및 기관별로 산업·기관·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를 통합 관리
- * 통합관리를 위한 지역내 대표 혁신기관(예: TP)을 지정하고, 이 기관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DB 종합 및 시스템 구축운영

- 지역기업 성장현황 관련 실시간 정보의 기관간 공유·활용 확대

- * ①기업규모별/성장단계별 기업성장 현황, ②기업성장 영향요인(환경적 외부요소(산업, 시장, 기술), 기업 내부요소(혁신역량, 기획역량, 투자역량, 인적자원역량, 사업화역량 등)) 등에 관한 정보 활용 → 지역사업의 성과 제고



IV. 투자효율화 전략 (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중심)

협력의 선행조건

3. (지역혁신협의회 주관하에) 지역혁신기관 간 기능조정 시행

- (중앙 차원) 기관의 보유 자원, 역량,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간 역할분담의 기본방향 설정 → 각종 지역사업의 운영지침에 반영하여 신규과제의 기획·추진시 적용 의무화

* 기관간 특화 핵심. 보조기능(지원서비스)은 서비스 제공의 공간적 범위,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, 서비스 전달체계, 지원대상 산업·연구자 등을 기준으로 설정

RIS기관과 지역소재 NIS기관 간 역할분담 방향(예시)

	서비스공간범위	서비스특성	서비스전달체계	서비스지원대상
RIS기관	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	선택형 서비스(Ready-made service)를 제공	선택형 서비스를 직접 개발·제공	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지원
지역소재 NIS기관	사전협약에 따라 정해진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	지역 맞춤형 서비스(Custom-made service)를 제공	NIS기관 선택형 서비스의 간접 전달 및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직접 개발·제공	지역별 대표산업(주력·협력·특화) 분야의 기업·연구자

IV. 투자효율화 전략 (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중심)

4. 지역혁신기관 간 기능 연계 및 협력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

● 기관간 기능조정을 통한 특성화·차별화를 전제로, 기관간의 상호보완적 기능 연계를 통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추진

- * 사업 기반의 연계협력 활동(회의, 워크숍, 세미나 등)과 관련한 예산의 적정화(예: 한도 설정)를 통해 제도적 연계협력체제(수직적 네트워크)의 단순통합화 추진
- * 지역별 산업·과학기술 여건특성, 기관간 관계특성(연관위계 수준) 등을 고려하여 기관 간 연계·협력체계의 유형화 추진 및 개방성 강화
 - (예시) 기업성장단계별 ‘창업지원(창업보육센터, 창조경제혁신센터)-기술사업화(연구개발특구)-자립성장육성지원(TP특화센터)-사업화양산지원(중진공, 산단공 지역본부)’ 등과 같이 기관간 연계·협력을 제도화
- * 지역 기업들이 부처와 사업의 종류에 관계 없이 기업지원서비스(비R&D사업)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도형 통합지원체계 구축
 - 기업지원서비스 대표기관(시도별 자율지정)이 지원창구 역할(기관별 지원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)을 수행하고, 서비스 내역별로 관련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



IV. 투자효율화 전략 (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중심)

(참고) 지역혁신기관간 협력 플랫폼의 구축 방향

- (오프라인 중심 운영 → 온라인 · 오프라인 병행 운영)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방식의 병행 필요

* 온라인 운영방식에만 의존할 경우 논의 · 토론 및 협의안 도출이 방향성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한계를 고려해 볼 때, 오프라인 운영방식을 병행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도 중요

- (폐쇄적 참여 · 구성 → 개방적 참여 · 구성) 다수 이해관계자가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고, 언제든지 자유롭게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지향

* 다양한 분야의 다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개방형 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창의 · 혁신적 협력 방안 도출



IV. 투자효율화 전략 (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중심)

(참고) 지역혁신기관간 협력 플랫폼 구축방향

- **(공급자 중심 →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)** 지역산업 · 과학기술 분야의 최종 수요자, 즉 지역기업 · 연구자 중심으로 운영 강화

* 지역산업 · 과학기술 관련 지역 중소기업이 실제 직면하고 있는 이슈 · 문제점을 정확하게 식별하고,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장 부합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

- **(정보 · 지식 수집 · 교류 중심 → 문제해결 방안 도출 중심 운영)** 산학연 이해관계자 간의 단순 교류가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의 제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정

* 지역의 각종 이슈 ·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지자체 시책에 즉시 · 적기 반영 되기 위해서는 단순 자문 이상의 구체적인 결과물(예: 전략 · 기획보고서 등) 도출 필요



감사합니다

